『여인의 초상』과 『워싱턴 스퀘어』에 나타난 도덕 개념 : 이사벨과 캐서린의 자기 발견

도현지*

〈차 례〉

1. 머리말
2. 선과 악의 문제: 이사벨의 도덕의식
3. 개성과 간섭의 문제: 캐서린의 자아의식
4. 맺음말

【국문초록】

헨리 제임스는 삶의 리얼리티는 인간 내면에 있다고 믿으며, 개인의 의식과 도덕성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를 경험의 세계와 결부시키면서 자신의 선악관 및 도덕관을 제시한다. 그가 추구하는 진정한 도덕성은 삶의 다양한 측면을 풍부하게 열거하고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의 잣대로 개인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아가 자유롭게 성장, 발달하는 것에 있다. 제임스는 이것을 선(善)으로 보고 반대로 개성의 부정, 자아 발달을 방해하는 편협한 시각과 권력, 권위적인 인물이나 간섭은 악

*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惡)으로 본다.

『여인의 초상』과 『워싱턴 스퀘어』에는 제임스가 중요시하는 도덕성과 의식의 흐름이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의 대립, 두 여주인공의 낭만적 성향이 현실 세계와 부딪침으로써 어떠한 실패와 좌절을 겪는지, 유럽을 경험하면서 변화하는 그들의 의식의 발전 양상과 자기 발견 과정은 흥미롭게도 유사하다. 『여인의 초상』의 이사벨 아처는 유럽 사회에서 의식의 시련 과정을 겪게 되지만, 이사벨의 순수성은 선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녀는 삶의 보편적 진리를 이해하는 내면적으로 성숙한 여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워싱턴 스퀘어』의 캐서린 슬로퍼는 결혼과 유산상속 문제를 통해 치열한 내적 갈등과 정체성 탐색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캐서린은 그녀의 삶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들로 인하여 희생되지만 자신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하면서 자아 존중 의식을 갖게 되고 성숙한 인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사벨과 캐서린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자 했던 인물들과 갈등하는 구조는 유사성을 가지며 그들과의 대립 관계에서 제임스의 도덕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인의 초상』과 『워싱턴 스퀘어』에서의 선과 악의 대립, 한 여성과 개인의 고유성을 침해하고 간섭하려는 이들과의 대립을 통해 심리적 사실주의, 도덕주의 작가로서 제임스의 섬세한 여성 의식 변화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건전한 도덕성을 찾아볼 수 있다.

주제어: 선과 악, 도덕 개념, 정체성 탐색과정, 의식 변화

1. 머리말

헨리 제임스(Henry James, 1843~1916)가 심리적 사실주의 작

가 내지는 경험주의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현실 세계에 던져진 인간의 내면 의식을 문학적 소재로 다루기 때문이다. F. O. 매티슨(F. O. Matthiessen)이 "의식은 곧 제임스의 종교"[1]라고 말했듯이 제임스는 인간성의 리얼리티는 인간의 내면생활에 있다고 믿으며 내면의 심리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치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2] 제임스의 의식에 대한 개념과 그가 중요시하는 주제인 도덕성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개인의 의식 속에 그의 도덕적 관심은 집중되어 있다.[3] 제임스는 인간 경험의 도덕적 측면[4]에 초점을 두고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선과 악의 문제를 경험의 세계와 결부시키면서 자신의 선악관 및 도덕관을 제시한다.

제임스가 추구하는 도덕성은 그가 『허구의 예술』(*The Art of Fiction*)에서 "도덕적 에너지의 핵심은 모든 분야를 고찰하는 것이다"[5]라고 언급한 바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삶의 다양한 측면을 풍부하게 열거하고 어떠한 이론이나 사상의 잣대로 개인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아가 자유롭게 성장, 발달하는 것이 바로 선(善)이며 제임스의 진정한 도덕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성의 부정, 자아 발달을 방해하는 편협한 시각과 권력, 권위적인 인물이나 간섭은 악(惡)이 되는 것이다. 제임스의 악에 대한 개념은 "제임스는 개인의 고유성을 해치거나

---

1) Robert J. Reilly, "Henry James and the Morality of Fiction". *Criticism*, ed. Lewis Leary (New York: Ha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71), p. 178에서 재인용

2) C.B.Cox, *The Free spirit* (Westport: Greenwood Press, 1980), p. 6.

3) Lyall H. Powers, *Henry James*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70), p. 4.

4) Daniel J. Schneider, *The Crystal Cage* (Lawrence: The Regents Press of Kansas, 1978), p. 9.

5) Henry James, "The Art of Fiction", The Portable Henry James, ed. Morton Dauwen Zabel (Harmonsworth: Penguin Books Ltd., 1979), p. 411.

인간적 발전을 방해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악으로 보고 있다"[6]고 한 리얼 H. 파워즈(Lyall H. Powers)의 말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제임스의 중기 소설을 대표하는 두 작품 『여인의 초상』(*The Portrait of a Lady*)과 『워싱턴 스퀘어』(*Washington Square*)에는 제임스가 말하고자 하는 도덕 개념과 두 여성의 자기 발견 과정이 잘 드러난다. 『여인의 초상』은 독립심 강한 미국여성인 이사벨 아처(Isabel Archer)의 결혼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유럽 사회에서 이사벨이 의식의 시련 과정을 겪는 가운데 드러나는 그녀의 순수성은 그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길버트 오스몬드(Gilbert Osmond)와 멀 부인(Madame Merle)과는 상반된 도덕 개념을 보여준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제임스는 내면적으로 성숙한 여성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사벨의 자아 발견 과정과 그녀의 도덕의식을 보여준다.

리언 이델(Leon Edel)은 『워싱턴 스퀘어』를 "심리적 사실주의의 완벽한 작품으로 미국의 고전"[7]으로 평가하는데 제임스의 특징적인 여성의 미묘한 심리 발달이 잘 묘사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스퀘어』는 1840년대 뉴욕 상류계층의 슬로퍼 박사(Dr. Austin Sloper)와 그의 딸 캐서린 슬로퍼(Catherine Sloper) 그리고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진 모리스 타운센드(Morris Townsend) 사이에서 벌어지는 결혼과 유산상속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캐서린을 간섭하고 조정하려는 슬로퍼 박사와 페니먼 부인(Mrs. Penniman) 그리고 세속적인 약혼자 모리스는 캐서린의 삶을 좌절시키는 악인들이다. 그들에 의하여 캐서린은 희생되지만 그녀의 도덕적 건강

---

6) Lyall H. Powers, ed. *Henry James' Major Novel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73), p. 15.

7) Leon Edel, *The Henry James Rea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5), p. 2.

미와 정직함은 선으로 드러난다.

두 작품에서 제임스가 묘사하는 악인의 특징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무시하고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도구로 간주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여 타인의 삶까지도 조정하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다. 제임스의 선악관과 여성의 심리와 의식의 흐름에 집중한다는 점, 현실적 경험을 통하여 주인공이 자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상당한 주제의 유사성을 가지며 상호 조명의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작품에서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제임스의 선과 악의 개념은 무엇이며, 현실을 체험하는 두 여성의 자기 발견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임스의 진정한 도덕 개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한다.

2. 선과 악의 문제: 이사벨의 도덕의식

제임스에게 의식이란 삶의 실재를 인식하는 것이며, 그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와 정신적 성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임스는 여성의 섬세한 심리와 의식이 남성보다 내적 성장을 이루는 데에 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성의 의식 세계에 초점을 두면서 여성을 통해 도덕성과 긍정적인 덕목을 갖춘 인간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인의 초상』의 이사벨은 순수하고 무지했던 상태를 벗어나 참된 현실 인식에 도달함으로 그녀의 의식은 성장하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과 이상추구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게 되며, 삶에 대한 확장된 의식을 갖고 사회적 존재로 거듭난다. 『워싱턴 스퀘어』의 캐서린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성찰을 하면서 자아 존중 의식을 갖게 되고 성숙한 인간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녀는 주어진 환경이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항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입증해 보이는 주체적인 위치를 확립하여 삶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하고 고수하게 된다.

『여인의 초상』은 이사벨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그 운명에 맞서 나가는 가운데, 현실 경험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의식의 확장이 중심이 된다. 미국과 유럽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대조함으로써 이사벨로 하여금 삶의 총체적인 모습과 삶의 보편적 진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며, 인생과 예술 그리고 고상한 삶에 대한 감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적 사고를 가진 여성이다. 그러므로 이사벨이 결혼상대자를 선택하는 일은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유와 독립이라는 문제와 결부된 중요한 문제이다. 이사벨은 유럽으로 건너오기 전부터 인생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과 자아실현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알바니(Albany)에서의 이사벨의 생활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이었으므로 그녀는 여러 면에서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했으며 순진했다. 그녀가 책으로부터 습득한 이론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삶의 기준이 된 그것은 그녀를 상상과 낭만적 이상주의로 빠지게 했다. 이사벨은 세상을 자아실현과 자기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조건 배제되어야 한다는 단정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사벨은 인생의 한계를 부인하고 자신의 이상이 부과하는 책임의식도 알지 못하여 현실에 대한 무지와 이상 추구에 뒤따르는 한계를 외면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벨은 가든코트(Gardencourt)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곳을 자신이 상상해오던 곳과 일치시키면서 풍부한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오로지 순수한 꿈만 품고 자아실현의 방해 요소에 대한 강

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벨은 워버튼 경(Lord Warburton)과 캐스퍼 굿우드(Caspar Goodwood)의 청혼을 거절한다. 이사벨은 영국 상류사회를 상징하는 워버튼 경을 그녀의 이상 추구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워버튼 경의 완벽한 체제 속에 자신이 구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정형화된 그의 삶이 그녀의 주체성과 의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한편, 뉴잉글랜드 출신의 실업가인 굿우드는 실용주의적이고 근면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이사벨은 열정적이며 강인한 의지를 가졌으나 제도나 문명과는 대조되는 그의 기질은 이사벨의 정신적 성장을 도울 수 없으며, 그녀를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사벨은 두 구혼자를 거부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사벨의 순진성에서 기인했으며, 비현실적 이상 추구 과정에서 온 그녀의 독선의 결과이다. 랄프 터쳇(Ralph Touchette)은 제임스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인물이며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 19세기에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삶의 기회는 많지 않음을 간파하고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그녀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유산은 이사벨의 이상적인 성향을 부추기게 되고 그녀의 재산을 탐내는 멀 부인과 오스몬드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사벨은 그녀의 순진성을 악용하려는 멀 부인과 오스몬드를 만나면서 가혹한 현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사벨의 낭만성은 멀 부인의 인위적인 행동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녀를 세련되고 완벽한 인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멀 부인은 이기심과 타락한 도덕성을 숨긴 채 오스몬드와 그녀의 딸 팬지를 위해 이사벨을 이용하는 가식적인 인물이다. 멀 부인의 소개로 만난 오스몬드는 이사벨에게 미국과 유럽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상적이며 그녀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인물이었다. 이사벨의 낭만성은 오스몬드의 모든 허위적인 말과 행동을 미화시키고 그와의 결혼은 그

녀를 진정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오스몬드와의 결혼을 결정한 이사벨에게 보이는 오스몬드의 모습을 도로시아 크룩(Dorothea Krook)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For Isabel Archer, he is more than merely a man of cultivated taste. he is poor; he is solitary; he is handsome, in the finest, least obtrusive way. he is grave and somewhat sombre, yet with an effect not at all depressing but only intriguing. he had evidently suffered and this has left scars, but the scars are not disfiguring. and, above everything, he has personal distinction of a kind and in a degree overwhelming to her.[8]

> 이사벨 아처에게 그는 단지 세련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여웠다; 그는 혼자 있길 좋아했다; 그는 눈에 최대한 튀지 않게 잘생겼다. 그는 심상치 않은 사람이었고 침울했지만 전혀 우울하게 만들지는 않았고, 그저 흥미로울 뿐이었다. 그는 딱 봐도 고생을 했고 그것이 상처로 남았지만 흉하진 않다.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에게는 과분한 개인적인 타고남을 가지고 있다.

이사벨의 순진성과 낭만성으로 인하여 그녀는 오스몬드의 허상에 매혹되어 결혼과 동시에 그의 암흑과 마비와 질식의 집으로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찰스 R. 앤더슨(Charles R. Anderson)은 오스몬드의 잔인성은 이사벨을 인간이 아닌 예술품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9] 오스몬드와 멀 부인은 제임스의 도덕관에서 최고의 악인들로, 인간을 그 자체가 아닌 수단과 도구로 간주하는 인물들이다. 그는 처음부터 이사벨을 생명력 없

---

8) Dorothea Krook, "*The Portrait of a Lady*,"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p. 714.

9) Charles R. Anderson, *Person, Place, and Thing in Henry James's Novel* (Durham: Duke UP, 1977), p. 114.

는 예술품으로 자신의 취향을 나타내는 수집품으로 보았으며 자신의 완벽한 예술품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상상력이나 생명력을 없애버리려고 할 만큼 잔인하다. 오스몬드는 지극히 세속적이며 탐욕스런 인물이고 인습과 관습에 얽매여 있는 위선자이며, 이사벨에게 보여주었던 그의 고상한 심미주의는 속임수와 기만이었다. 결혼을 통해 현실세계를 체험한 이사벨은 오스몬드와의 결혼생활은 자신을 억류하고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어둡고 무기력한 질식의 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자신의 결혼은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도출된 환상의 결과임을 깨달으며 이사벨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갈등하고 고통 받는다. 이사벨은 오스몬드의 실체가 인위적인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쫓고 있던 이상세계는 현실세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자각한다. 잘못된 선택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체험하면서 이사벨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으며 독선적이었는지를 통감하며 삶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발전한다. 『여인의 초상』 서문에서 제임스는 42장의 한밤중의 명상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상 세계를 쫓고 있던 이사벨이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 He was not changed; he had not disguise himself, during the year of his courtship, any more than she. But she had seen only half his nature then, as one saw the disk of the moon when it was partly made by the shadow of the earth. She saw the full moon now—she saw the whole man. She had kept still, as it were, so that he should have free field, and yet in spite of this she had mistaken a part for the whole.[10]

---

10) Henry James,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 그는 별로 변한 게 없었다. 그는 구혼을 할 무렵에도 그녀처럼 본심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이사벨은 그의 본성의 반쪽만을 보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지구의 그늘 때문에 일부가 가려진 표면만을 본 것과 같았다. 지금 그녀는 만월, 즉 인간 전체를 보게 된 것이다. 이사벨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말하자면 가만히 있었지만 역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부를 전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상을 통하여 이사벨은 그녀가 갖고 있던 이전의 낭만적 사고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된다. 이사벨은 자신의 이상추구는 현실과 분리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삶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제임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실세계의 다양한 실상에 직면하여 주위의 세계에 의하여 또는 그들 스스로가 설정했던 사고의 틀을 수정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중대한 의식의 시련을 겪지만, 제임스는 이러한 개인의 독자적 경험이야말로 도덕의 문제로 직결된다고 보았다.[11]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도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이사벨의 결정에는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내하겠다는 강한 도덕성이 잠재하고 있다. 이사벨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것은 그녀가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행복을 초월하여 삶의 본질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사벨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은 현실에서 수정되어져야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이사벨은 이상적인 삶이 현실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York: Norton, 1975), p. 357.

11) 최경도, 「헨리 제임스의 『대사들』: 삶의 도덕적 비전」,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제 11-2호, 1990, pp. 89-108.

3. 개성과 간섭의 문제: 캐서린의 자아의식

제임스는 한 번도 도덕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그가 『허구의 예술』에서 언급한대로 개인의 고유성을 인정하여 자유롭게 성장, 발달하도록 하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도덕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인의 초상』에서 이사벨과 오스몬드, 멀 부인의 대립 관계는 『워싱턴 스퀘어』에서는 캐서린과 슬로퍼 박사, 페니먼 부인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오스몬드와 멀 부인처럼 슬로퍼 박사와 페니먼 부인 그리고 모리스는 캐서린의 자아와 개성은 인정하지 않고 그녀에게 치유될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입히지만, 캐서린은 정체성 탐색 과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사회적 입지를 다지며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한다.

『워싱턴 스퀘어』는 19세기 중반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물질중심의 사고가 팽배해진 미국 동부 상류층 사람들의 습성은 슬로퍼 박사를 통해 묘사되고 있다. 외면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슬로퍼 박사는 물질적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올바른 삶의 태도나 도덕관념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는 캐서린이 지극히 평범하고 영리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걸맞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는 캐서린이 천성은 착할지 모르나 평범하다 못해 둔한 아이라고 평가를 내리며 실망하는데, 슬로퍼 박사는 자신이 규정한 범주에 따라 딸마저도 유형화시키고 항상 자신의 판단은 옳은 것이라고 믿는 이기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캐서린은 자신을 낳은 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로인하여 아버지에게 느끼는 죄책감이 그녀를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착한 딸이 되고자하는 강박의식을 가지게 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찍 어머니를 여읜 캐서린은 자신의 여성성을 인식할 기회도 없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순수하고 정직한 캐서린은 언제나 완벽할 정도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아버지의 이면에 숨겨진 위선적이며 냉혹한 모습은 알지 못한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워싱턴 스퀘어 저택을 벗어난 삶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캐서린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옷으로써 자신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슬로퍼 박사는 화려한 드레스는 그녀의 부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핀잔을 주면서 자신의 개성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을 억압한다.

캐서린의 자아의식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두 남성, 슬로퍼 박사와 모리스의 대립을 계기로 성장하게 된다. 유산을 탕진하며 세상을 떠돌았던 모리스는 세속적인 인물로 캐서린을 대할 때마다 조롱어린 미소를 내비치지만 캐서린의 미성숙한 인식은 그의 음흉한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 슬로퍼 박사는 모리스를 고상한 취향도 경제력도 갖추지 못한, 허영심으로만 가득 찬 젊은이로 치부하면서 그가 딸의 재산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라며 반대한다. 슬로퍼 박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딸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캐서린의 저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캐서린은 두 남성의 권위와 거짓된 애정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슬로퍼 박사와 캐서린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고 독립하고자 한다.

아버지의 회유책으로 떠난 유럽 여행을 계기로 캐서린은 내적으로 더욱 강인해지고 새로운 열정에 사로잡히면서 자기만의 판단력을 갖춘 여성으로 변화한다. 캐서린은 워싱턴 스퀘어의 저택을 벗어나 외부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캐서린은 알프스 산 속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시선과 애정이 왜곡되어 있었음을 깨닫는다. 아버지와 캐서린이 나눈 대화에서 그들의 관계는 캐서린이 아버지의 권위와 공포심에 위축감을 느끼며 일방적으로 복종해야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 The place was ugly and lonely, but the place could do her no harm. … but Catherine hardly went so far as to say to herself that it might be part of his plan to fasten his hand – the neat, fine, supple had of a distinguished physician – in her throat. Nevertheless, she receded a step. 'I am sure you can be anything you please,' she said. And it was her simple belief.[12]

> 험악하고 적막한 장소였지만 그곳이 그녀를 해칠 수는 없었다. … 하지만 캐서린은 아버지의 손이 – 출중한 의사의 단정하고 섬세하고 유연한 손이- 그녀의 목을 조를 계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발자국 물러섰다. '아버지는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그녀의 소박한 믿음이었다.

알프스 산 속에서 보여지는 슬로퍼 박사의 모습은 딸의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파괴적인 인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에 캐서린의 영혼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슬로퍼 박사가 행하는 악은 캐서린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을 사유물로 간주하여 자신의 협박과 강제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인의 초상』에서 이사벨의 달빛

12) Henry James, *Washington Square* (New York: Penguin, 2007), p. 133 이하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속에 면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아래 독백장면에서처럼 캐서린은 알프스 산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고 자아를 돌아볼 수 있게 되며, 상처를 입지만 자생력을 갖게 된다. 유럽으로 옮겨간 이사벨과 처음으로 워싱턴 저택을 벗어나 유럽을 여행하게 된 캐서린은 장중한 역사를 지닌 유럽을 둘러보면서 그들의 무모함과 무지함을 발견하여 연마한다는 제임스의 특징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유럽 여행으로 캐서린은 모리스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고, 그것은 아버지는 더 단호하게 만드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슬로퍼 박사와 모리스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서린의 고집스러움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녀의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있다. 대립된 갈등관계에서 캐서린은 관습적인 아버지에 대해 저항하며 자신의 행동 원칙을 세우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싶어 한다. 한편, 모리스는 유산상속이 가능한지에 속물적 관심을 드러내면서 슬로퍼 박사의 단호함과 캐서린의 호락하지 않음 사이에서 물질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슬로퍼 박사와 캐서린의 갈등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페니먼 부인은 캐서린과 모리스의 결혼을 자신이 성사시키겠다는 낭만적 감성에 젖어서 그들의 비밀결혼을 종용한다. 그녀는 캐서린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낭만이 주는 쾌락을 쫓느라 그녀의 무책임한 상상력이 현실에서 벗어나 방종에 이르는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캐서린과 모리스의 관계를 조정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삶을 허구적으로 상상하기를 즐기는 페니먼 부인은 캐서린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요하고 삶을 규정할 권리도 없지만, 타인의 삶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슬로퍼 박사의 숨막히는 의심과 페니먼 부인의 끊임없는 간섭에 캐서린은 좌절하고 열렬히 구애했던 모리스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에 절망한

그녀의 상처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캐서린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목적에 희생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존재와 자아는 상실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 There was something dead in her life, and her duty was to try and fill the void. … She developed a few harmless eccentricities; her habits, once formed, were rather stiffly maintained; her opinions, on all moral and social matters, were extremely conservative; and before she was forty she was regarded as an old-fashioned person, and an authority on customs that had passed away.(183)
>
> 그녀의 삶에서 뭔가가 죽어 버렸고, 그녀의 의무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 그녀는 몇 가지 별난 습성을 개발했는데, 일단 버릇으로 굳어지고 난 다음 이를 완고하게 지켜 나갔다.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한 그녀의 견해는 아주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40세가 되기 전에 그녀는 구식의 인물로 간주되었고, 지나가 버린 관습의 권위자가 되었다.

캐서린의 삶은 뭔가가 죽어버린 불모의 삶이 되어버렸고, 그녀는 자신의 상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독신의 삶을 택한다. 좌절한 캐서린의 상처를 알지 못하는 슬로퍼 박사는 오히려 캐서린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모리스를 포기하지 않은 눈가림이라고 생각한다. 페니먼 부인의 허구적 감상성을 조소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자만하던 슬로퍼 박사는 캐서린을 이해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슬로퍼 박사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모리스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하지만 캐서린은 끝까지 약속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억압해 왔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겠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이고, 이제 캐서린은 아버지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또 다른 대등한 인격체가 되었음을 말한다.

슬로퍼 박사의 죽음 후에도 캐서린은 워싱턴 스퀘어 저택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로 결심한다. 『여인의 초상』에서 이사벨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굿우드의 청혼을 거절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녀의 확장된 의식에서 비롯된 자유와 책임에 근거한 판단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캐서린은 이전의 현실에 대한 미성숙한 인식을 벗어나 삶에 대한 자기 판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제임스는 문학작품은 지각된 삶을 전달해야 하며, 도덕적 비전이란 민감한 감수성으로 수용되는 지각된 삶의 분량에 비례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13]

이러한 제임스의 삶에 대한 도덕적 비전은 자아를 발견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 캐서린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자신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했으며 목적 달성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녀를 떠났던 모리스를 거절하는 캐서린의 단호한 태도는 순진하고 현실적 인식이 부족했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모리스로부터 받은 고통스러운 상처로 인해 독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녀의 삶은 좌절되었고 희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선활동과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입지를 굳건히 해나가는 모습은 자아를 획득한 캐서린이 구축해나가는 그녀의 새로운 삶이다.

4. 맺음말

제임스는 『여인의 초상』의 중심을 젊은 여인의 의식 속에 두고 있으며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여인을 그리려고 했다고 설명한

13) 최경도, 같은 글, p. 90.

다.[14] 이사벨은 자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영리한 여성이며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크룩은 이사벨의 낭만적 상상력은 그녀가 유럽문화의 미와 우아함으로 가려져 있는 타락한 도덕의식이나 유럽적 악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다.[15] 이사벨의 성격적 결함과 그녀를 이용하고자 한 멀 부인 그리고 오스몬드에 의해 그녀는 고통 받고 희생되지만, 현실 체험을 통해 성장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과감하게 수용하는 능동적인 여성으로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사벨의 로마 복귀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그들의 몰락한 윤리관이나 타락한 도덕성과는 선명하게 대립되는 제임스의 도덕관을 반영하고 있다.

제임스의 도덕성은 제도권 아래의 인습이나 윤리적인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한 인격체의 자유로운 정신과 삶의 경험을 통한 자아의 성장을 포괄한다. 『워싱턴 스퀘어』의 캐서린은 슬로퍼 박사, 페니먼 부인 그리고 모리스에게는 하나의 수단 내지는 소유물로 전락하여 기만당하고 조롱당한다. 자신의 삶은 강요당했으며 그녀의 자유와 의지는 간섭 받았음을 뒤늦게 깨달은 캐서린은 침묵으로 저항하고, 그녀의 의식은 변화하게 된다. 리처드 포이리어(Richard Poirier)는 캐서린은 순종적인 딸의 상태에서 벗어나 분명한 자기 판단력을 갖춘 성인으로 탈바꿈한다고 말한다.[16]

이사벨과 캐서린은 현실에 순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

14) Henry James, "Preface to the New York Edition,"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p. 10.

15) Dorothea Krook,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New York: Cambridge UP, 1967), p. 8.

16) Richard Poirier, *The Comic Sense of Henry James: A Study of Early Novels* (New York: Oxford UP, 1967), p. 180.

자신의 삶과 가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도덕적인 자아로 발전하게 된다. 제임스의 도덕성은 도덕적 행동의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도덕적 의식에서 발견된다. 『여인의 초상』과 『워싱턴 스퀘어』의 두 주인공이 유럽을 여행하면서 삶을 인식하는 태도가 변화하고 자의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제임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두 작품은 이사벨과 캐서린이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자 했던 인물들과 갈등하는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는데 그들과의 대립에서 제임스의 도덕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임스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은 어떠한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자유로운 삶과 개성의 성장은 선의 의미로, 그것을 저해하고 좌절시키는 인습과 타자의 삶을 조정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인물은 악의 의미로 분류한다. 현실적 경험을 통하여 주인공이 성장하고 바람직한 도덕의식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여인의 초상』과 『워싱턴 스퀘어』는 구조적 연대감을 시사하는 가운데 심리적 사실주의, 도덕주의 작가로서 제임스의 섬세한 여성 의식 변화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건전한 도덕성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James, Henry.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York: Norton, 1975.

_____. *Washington Square*. New York: Penguin, 2007.

2. 논문

최경도, 「헨리 제임스의 『대사들』: 삶의 도덕적 비전」,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11-2호, 1990, pp. 89-108.

3. 단행본

Anderson, Charles R. *Person, Place, and Thing in Henry James's Novel*. Durham: Duke UP, 1977.

Cox, C. B. *The Free spirit*. Westport: Greenwood Press, 1980.

Edel, Leon. *The Henry James Rea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5.

James, Henry. "The Art of Fiction." *The Portable Henry James*, Ed. Morton Dauwen Zabel. Harmonsworth: Penguin Books Ltd., 1979, pp. 391-415.

_____. *The Notebooks of Henry James*. Eds. F. O. Matthiessen and Kenneth Murdock. Oxford: Oxford UP, 1947. Reprinted in *The Portrait of a Lady*. New York: Norton, 1995.

_____. "Preface to the New York Edition."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York: Norton, 1975, pp. 3-15.

Krook, Dorothea. *The Ordeal of Consciousness in Henry James*. New York: Cambridge UP, 1967.

_____. "*The Portrait of a Lady*."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York: Norton, 1975, pp. 562-75.

Leavis, F. R. *The Great Tradi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Ltd., 1974.

_____. *Henry James: The Early Novels*. Boston: Twayne, 1983.

Matthiessen, F. O. *Henry James: The Major Phase*. New York: Oxford UP, 1944.

Mazzella, Anthony J. "The New Isabel." *The Portrait of a Lady*. Ed. Robert D. Bamberg. New York: Norton, 1995, pp. 597-619.

Poirier, Richard. *The Comic Sense of Henry James: A Study of the Early Novels*. New York: Oxford UP, 1967.

Powers, Lyall H. *Henry James' Major Novel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1973.

Reilly, J. Robert. "Henry James and the Morality of Fiction." *Criticism*, Ed. Lewis Leary. New York: Ha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71.

Schneider J. Daniel. *The Crystal Cage*. Lawrence: The Regents Press of Kansas, 1978.

Wagenknecht, Edward. *The Novels of Henry James*. New York: Fredrick Ungar, 1983.

[Abstract]

Moral Concept in *The Portrait of a Lady* and *Washington Square* : Isabel and Catherine's Self-discovery

Doe, Hyun-Jee

Henry James believes that the reality of life is in the human mind, thinking the consciousness and morality of the individual are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James sorts out the diversity of life with a variety of aspects and the free development of the individual self without depriving the opportunities of personal life as Good and the narrow viewpoint, power, authoritative figure and intervention to prevent the self-development as Evil.

His moral concept which he puts an emphasis on and the stream of consciousness comes out well in two works, *The portrait of a Lady* and *Washington Square*. In addition, confrontation between Good and Evil, how the romantic nature of two heroines crushed against the real world into failure and frustration and their developments of consciousness interestingly have in common.

Isabel and Catherine have the structural similarity found in the confrontation with the figures who would willingly participate in their lives, which is reminiscent of James' concept on Good and Evil. It is possible to find out James' delicate consciousness change of women as a writer of psychological realism and moralism and their sound morality through confrontation between Good and Evil, Reality and Ideal in *The Portrait of a Lady* and *Washington Square*.

Key words : reflection on the Good and Evil, moral concept, developments of consciousness, human experience

도현지
소속: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10-7216-6222
전자우편: hyunjee1015@daum.net

이 논문은 2015년 3월 30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